

가나도리이

후지산역에서 불과 몇 분 거리에는 후지산 정상을 중심으로 영계와 속세의 경계를 나타내는 커다란 도리이가 서 있습니다. 가나도리이라고 불리는 이 도리이의 두 기둥 사이를 통해서는 후지산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. 또한 이 도리이는 에도에서 온 후지코 신자들이 후지산 정상을 가기까지 지나야만 하는 8 개의 도리이 중 첫번째였기 때문에 '이치노 도리이 (첫 도리이)'로도 알려져 있었습니다.

경계의 저편

가나도리이는 1788 년 후지코 신자에 의해 창건되었습니다. 도리이 자체는 목제로 만들어졌지만 기둥이 동판으로 덮혀져 있었기 때문에 '가나도리이'('가나'는 금속 전반을 의미)라고 불렸습니다. 맨 처음 세워진 도리이는 두 번의 폭풍으로 쓰러졌다가 1831 년과 1878 년에 재건되었습니다. 재건된 도리이는 1942 년 전쟁 중의 금속 부족으로 수용되어 철거될 때까지 계속 서 있었습니다. 현재의 가나도리이는 1957 년에 완성된 구리를 입힌 콘크리트제로 이전의 도리이가 서 있었다고 여겨지는 위치보다 30m 정도 후지산과 가까운 장소에 세워졌습니다.

도리이 너머의 도로변에는 과거 후지코 순례자들의 등산이나 숙박을 돌보던 오시(御師)의 주택 수십 채가 늘어서 있었습니다. 각 후지코 단체는 산 정상으로 출발하기 전날 밤 순례자들이 숙박했던 오시 주택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. 지금도 5 곳의 오시 주택이 방문객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